

하늘의 씨앗

The Good Seed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역 소식지 / Wycliffe Canada Korean Ministries Newsletter



7월 1호 / Spring 2014

KM⁺ plus

선교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 첫걸음선교이야기/ 카이로스/ 퍼스펙티브스
- 라이프게임
- 잘스 선교 훈련 및 비전 여행
- RBBB

선교현장 이야기

- 김영수/미자 선교사
- A. & M. F.





편집인의 글

윤기태 선교사, 인사행정 및 교회동원 사역

성경을 통하여 얻는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때를 위하여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청년 모세처럼 아무리 그 소명과 동기가 분명한 헌신자라 할지라도, 아무 준비나 훈련 없이 그저 열정만 갖고 사역에 투입된다면 그 사람은 말은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역이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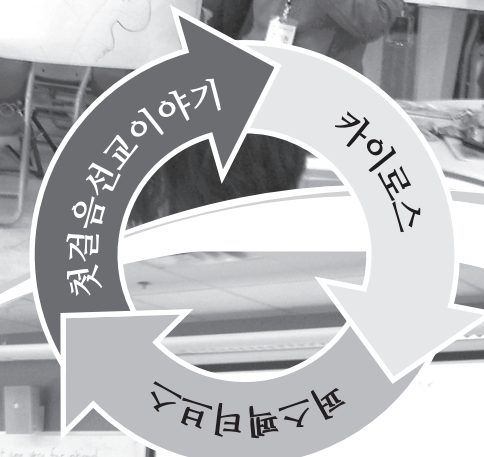
수 년 전 본지에서 몇 차례에 걸쳐 “시너지 창출 선교”라는 기획 시리즈를 냈었습니다. 교회의 참 정체성을 찾아주고 선교현장의 효과적인 사역을 증진시키는 선교회의 순기능과, 각종 재원을 갖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세계선교에 필요한 일꾼을 키워내고 동참하는 교회의 순기능이 함께 어울리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교회와 선교회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 하늘의 씨앗에서는 “KM+”라는 제목으로 한인사무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특집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위클리프는 선교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교회동원 프로그램과 성도들을 위한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개인들을 더욱 선교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이 프로그램중에서 특별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 위클리프의 사역은 성경번역을 통하여 교회가 모든 종족을 제자 삼는 일을 돕는 것이며...”

아울러 지난 호에 이어, 해외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 한 가정과, 캐나다 국내에서 사역중인 본부선교사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섬김의 모양은 다르지만, 비전은 같습니다! 각자의 모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모든 종족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위클리프 사역의 꿈입니다! 두 가정의 진솔한 사역현장 이야기를 통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위클리프의 사역은 성경번역을 통하여 교회가 모든 종족을 제자 삼는 일을 돕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 개인들이 각자의 몫을 감당하여 동참하는 과업입니다. ♡



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필요로 하는 교회마다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선교훈련을 시켜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을 공식화하고 여러 선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규준 선교사가 퍼스펙티브스 캐나다의 공식 한글 퍼스펙티브스 코디네이터가 되어 선교단체 연합으로 이 프로그램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에서는 협력하는 교회들에게 퍼스펙티브스, 첫걸음선교이야기, 카이로스 등으로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선교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지역교회를 돕기 위해 퍼스펙티브스 프로그램

7권 1호 / Spring 2014

Published by 발행인:
Korean Ministries
Wycliffe Bible Translations of Canada
위클리프캐나다 한인사무국
4-14 Steirway Blvd.,
Etobicoke, ON M9W 6M6
Phone 416-888-2262
Toronto Office
Toll Free: 866-702-5273
Fax: 416-675-7504
Kroffice_Canada@Wycliffe.ca
www.wycliffe.ca

Editors / Translators / Checkers
편집 / 번역 / 교정
Daniel Yoon 윤기태
Gyoojun Lee 이규준
Gilsue Lee 이길수
Diane Lee 이희경
Janet Seever 자넷 시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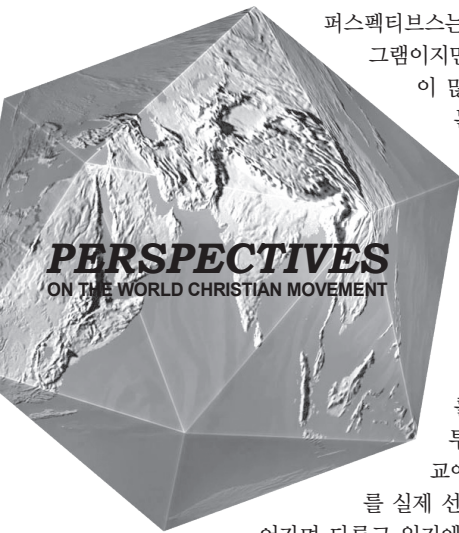
Design 디자인:
Julee Park 박주리
Colorbox Design & Printing

Wycliffe Canada's Vision Statement
위클리프캐나다 비전선언문
A world
where translated Scriptures
lead to transformed lives
among people of all languages.
모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모든 언어 종족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사역

표지 설명:
찰스 센터 전경과 2013년도 영락교회 잘스팀이
찰스 대표 우디 선교사와 함께, 특별 중보 기도
모임을 마친 후의 기념사진. 귀국 후 “잘스 친구들”
이란 이름으로 찰스의 사역과 대표 우디 선교사,
성경번역 선교사역 등을 위하여 매월 정기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제호 설명:
정산 정혜수선생(나이아가라 한인장로교회)
은퇴안수집사(가서) 위클리프 사역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써주신 붓글씨를
일부 편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스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소화해야 할 양이 많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좀 어려운 점입니다. 대략 100시간 정도 필요한데, 15주 동안 2시간 이상씩 약 30~40시간을 강의에 참여해야 하고, 집에서 나머지 약 60시간을 교재를 읽고 숙제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선교에 관련된 많은 주제를 실제 선교사역의 예를 들아가며 다루고 있기에, 좋은 강사들과 참가자들의 성실함이 합쳐지면, 선교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를 갖추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가자들이 헌신하게 되는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선교사 후보생들이나 교회에서 선교부원으로 섬길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코스입니다.

2008년 저희 협력교회인 캘거리한인장로교회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전교인 대상으로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어서, 교회전체가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평신도들을 위해, 강의/그룹토의/많은 활동 등으로 꾸며진, 재미있고도 쉬운 10시간짜리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프로그램이 잘 인정받아 계속해서 여러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여러 방식으로 헌신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더 깊은 이해와 헌신을 돕기에는 너무 짧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북미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어, 2014년부터 한국어 버전으로 보급하게 되는 또 하나의 훈련 프로그램은 카이로스 코스입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들이 개발하여 현재 60여개 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총 60시간이며, 수업 참여 40시간과 개인의 읽기와 과제물수행이 20시간 소요됩니다. 여러 면에서 아주 균형잡힌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도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도전 혹은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는 점이 좋습니다. 강사보다는 촉진자 혹은 조력자(facilitators)들이 참가자들을 도와 참가자들 스스로 찬양, 기도, 예배 등을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참여하고 인도하게 도와줍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얻게 된 점들을 '성장촉진그룹'에서 나눔으로 서로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게 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게 해주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

Kairos

God, the Church and the World

An exciting nine lesson interactive study of the purpose and plan of God from Genesis to the end of the age

www.kairoscourse.org

A member of the Perspectives Family

Living Springs International

	첫걸음선교이야기	카이로스 코스	퍼스펙티브 학습 프로그램
시간	10 hrs	40 hrs in class / 20 hrs at home	30 hrs in class / 70 hrs at home
목표			
교수학습방식			
등록비용	현금	\$125	\$150
단독/협력			

위의 그래픽 도표로 간단하게 비교해본 것처럼, 각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독특한 장점과 목표가 있어서,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정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에 따라 각자 필요에 맞게 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나 주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LIFEgame™

라이프게임은 “목적이 있는 삶”의 성경적 메시지를 바탕으로 고안된 아주 특별한 영성훈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캠프장이나 합숙 수련회가 가능한 장소에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고 참가자들은 실제의 삶과 똑 같은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참가대상: 만 15 세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교회(단체)단위 또는 연합수련회로도 가능 (한어권/영어권 모두)
장소: 캠프장이나 숙박이 가능한 장소
시기: 주로 실내에서 행사가 이뤄지므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년중 어느 때나 개설가능
조건: 프로그램의ダイナ믹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최소인원 60명이 되어야 합니다
참가비: 1인당 \$150+ 가량 (2박 3일 숙식포함, 장소/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진짜 실감 나는 삶의 체험

15세의 나이로 출발하며 꿈의 세상을 향하여 원하는 교육을 받고, 직장을 구하며, 생애 처음으로 차도 사고, 집도 장만합니다. 물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성공을 향한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매 세션마다 5년씩 나이를 먹으며 각자에게 필요한 의식주도 해결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지만, 실제의 삶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벌금에서부터 범죄와 사고와 재난과 질병,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도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이프게임은 현실 세상에서의 실제적인 삶을 직접 경험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목적이 있는 삶」에 관한 워크숍을 포함, 소그룹 토론, 드라마와 마임, 그리고 음악과 비디오 동영상, 주제별 메시지들을 통하여 믿음 생활에 큰 도전을 줍니다.

삶의 변화 체험!

라이프게임을 통하여 참가자중 약 70~80% 이상이 헌신(또는 재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고, 5~10%의 사람들이 전일사역에 헌신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청소년, 청년, 중년, 은퇴자 연령 대에 이르기까지 13,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



잘스(JAARS: Jungle Aviation And Radio Services) 센터는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왁스(Waxhaw)에 위치한 위클리 프성경번역선교회의 글로벌 기술지원센터입니다.

1948년 설립되어 오지에서 사역하는 성경번역선교사들의 항공 운송과 무선통신 지원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육상 해상 항공 등 모든 운송과 무선 통신은 물론 컴퓨터 기술, 멀티미디어, 몰타 구매 및 배송, 건축 및 건물 유지보수 등 다양한 기술지원사역으로 전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을 도와 자기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훈련목적

이 프로그램은 선교에 관심이 있으나 어떻게 동참할까 고민하는 분들, 신학 공부 등 다른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은퇴 전후의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자비량 선교사역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복미의 한인교우들에게 적합하며 참가하는 개인이나 파송교회에 선교와 동역을 알게 합니다.

첫째,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특기, 경력을 활용해 선교에 헌신 할 수 있음 잘스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인생 전체를 드러 힘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모습을 통해 지역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세워주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스센터 선교훈련 여행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한 모퉁이를 담당할 수 있다는 도전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행사일정

- Day 1 : 현지까지 차량(또는 항공편)으로 이동
 - Day 2~3 : 센터견학, 사역부서 탐방, 각종 운송시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 박물관 견학, 선교사 방문 등
 - Day 4 : 잘스데이 행사참가 및 사역 실습, 빌리그래함 라이브리리 방문, 총정리
 - Day 5 : 귀가
- 이 밖에도 아침 저녁으로 묵상나눔과 협력선교와 관련된 선교 세미나 및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참가자 그룹과 상황에 따라 요일과 일정은 조정 가능합니다.

참가방법

- 출발 시기: 매년 봄 / 가을
- 참가 인원: 1팀당 10~15명 내외로 선착순 등록
- 참가 경비: 개인당 US \$350 (현지에서의 숙식비와 행사 참가비 등 포함. 단, 왕복 카풀교통비/이동 중 식비는 별도 부담*)
- 참가자 준비물: 성경찬송, 세면도구, 옷가지 등 개인 용품
- 등록마감: 행사일 1 개월전



* 1인당 약 \$60 가량 분담예상 (운행거리: 토론토에서 왕복 2,600 km, 소요시간: 편도 15 시간내외 (+국경통과), 차량연료비용 약 \$300+, 왕복식대 4회+간식 2회 등)

행사주관

- 잘스센터
- 위클리프캐나다 한인사무국 ♡

로덤나무 그는 아래로부터



김영수 선교사 / 훈련, 캐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단순한 질문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질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족에게도 이 질문은 엄청난 멧가를 치러야 했던 질문이었고 그와 함께 숨겨진 복을 경험할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 코카서스에서 10년간의 성경번역사역을 마치고 현지인에게 사역을 이양할 때였습니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나의 군사들을 세우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부름 받았으나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 세우고 회복시키라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 이 보통 사람들에게 얼마나 낯설고 마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토론토에 돌아와 그 비전을 나눌 때 정말 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좌절과 실망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비전을 통해 저를 부르시는 이를 믿고 필요한 훈련을 받기 위해 토론토를 떠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엄마 아빠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잘도 따라다녔던 세 아이는 이미 십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12세가 된 큰 아이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문에 묶어두고 가라며, 이젠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그만두고 정착해서 살자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도 같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가야하나? 온 가족 다섯 명이 모두 풀타임 학생이 되면, 학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학비가 충당되어도 사는 건 어떻게 하지? 아무 답도 없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런 마음을 주변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러서 작년 여름, 저와 내내는 각각 교육학 박사 학위와 정신건강학 석사 학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토론토에 돌아와 각각 위클리프의 멤버케어 담당자로 위클리프/틴데일 하계훈련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의 지난 4년간의 시간은 선교지에서 10년을 포함해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저는 선교지에서조차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우울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공부에 빠져 있는 동안 어느새 세 아이가 모두 십대가 되어버렸고, 학업에 쫓기면서도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큰 갈등을 느꼈습니다. 자꾸 들어서지 않아야 할 길에 들어선듯이 여겨져 수 십 번도 더 학업을 포기하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작은 기숙사 아파트에서 다섯 명의 가족이 살며 아침마다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싸우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싸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을 부정할 수 없는 결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필요했던 학비의 전부가 기적처럼 여러 통로를 거쳐 전액 지불되었고, 시카고와 오하이오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비가 채워졌습니다. 때로는 동료선교사들의 후원으로 필요한 것이 채워졌고, 어떤 때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꼭 그런 방법으로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공급하시는 것일까!' 이런 은혜 가운데, 저와 내내는 각각 상담학과 교육학의 매력에 흠뻑 젖었고 학문과 교제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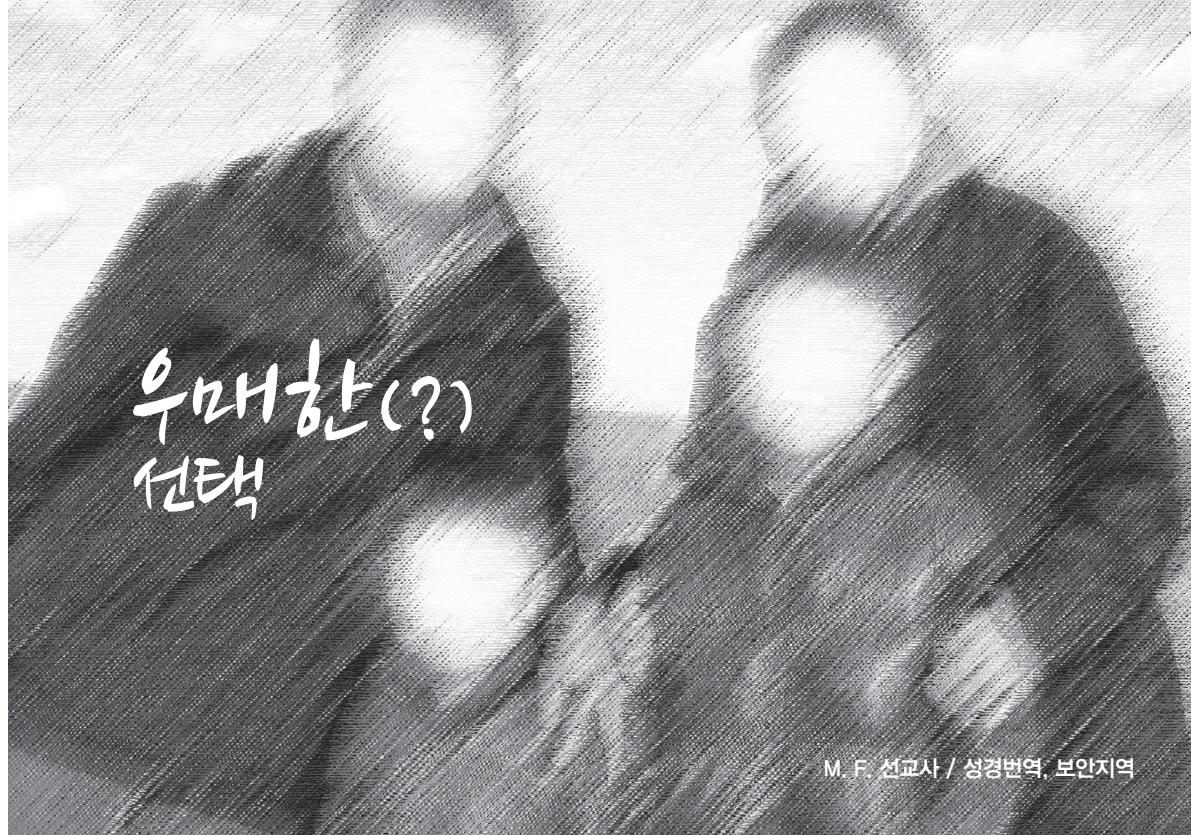
아픔과 기쁨, 커다란 고통과 놀라운 은혜를 뒤로하고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로덤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힘을 얻고 다시금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듣기를 갈구하며 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은 이제껏 온 길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또 다시 순종의 길을 가렵니다. 마치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삶 안에 인도해 주시는 그의

숨겨놓으신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또 그 교회들과 함께, 선교와 교육과 상담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두렵고 이제는 좀 어설픔게도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신음하는 군사들을 세우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시는 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1997년 저와 아내가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에 가입된 후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주신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너는 남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맛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 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왕상 19:16~18)



우대항안(?) 선택

M. F. 선교사 / 성경번역, 보안지역

저희 아이들은 부모의 국적이 달라 한국말과 중국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어느 나라 사람이나고 묻는 말을 듣게 된 큰 아이가 출생지를 기준으로 가족의 서로 다른 국적을 대담하자 유치원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와, 너희 가족은 국제연합이구나!”

지난(작년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복잡한 국적을 배경으로 한 저희 가족은 안식월을 남편의 파송교회가 있는 대만에서 보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회교권 지역에서 그들의 모어로 성경번역을 하는 저희 가정은 이제 신약의 모든 번역과 자문위원 점검을 마치고 여러가지 더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점검과 실질적인 테스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년에 한 차례씩 벌써 세 번째의 안식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선교지에서 받은 치과진료의 부실로 반이 부러져버린 이를 치료하고 온 가족이 건강검진을 하고 시부모님들과 시댁식구들, 한국의 친정어머니와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6살과 3살의 두 아이들은 자기들과 동일한

언어와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교회부설 유치원을 즐겁게 다녔습니다.

선교지의 여름은 '오븐' 더위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에 어느새 모든 습기가 비작 말라버리는 건조한 뜨거움입니다. 고향의 여름은 '찜통' 더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등줄기로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찜통 더위의 고향에서는 어디든 안으로 들어가면 냉방이 되어 더위를 식힐 수 있지만 오븐 더위의 선교지에서는 기온이 섭씨 50도가 넘어도 더위를 식힐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늘 고향에 돌아오면 선교지에선 볼 수 없는 신선한 먹거리와 물질의 풍성함이 눈과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싼 가격에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삶에 어떤 긴장을 풀어지게 해주었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한 차도에서 선명한 차선을 따라 신호를 지키며 달리는 모습도 선교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일상생활에 기술문명의 발달이 현저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면 한동안 저희는 다시 고향의 진화된 삶의 방식을 익히느라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 저희는 대만 위클리프의 사역을 돕기도 했는데 저는 자주 버스를 타고 사무실에 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야 언제 차비를 내는 지가 버스 밖에 전광판에 표시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냉방이 빵빵한 시내버스에 저 혼자 타고 가는데 여유있게 유모차를 밀고 한 아기엄마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창문을 반쯤 열고 후끈하게 달구어진 버스에 빼곡히 올라타고도 넘치는 승객들을 앞 뒤 문을 연 채 매달고 차선도 희미한 도로에 배를 끌듯이 버겁게 달려가는 선교지에서의 버스의 모습이 겹쳐서 보였습니다. 잘 개발된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집 정리를 하고 아이들이 현지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고, 선교지의 평상으로 서서히 돌아오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전에는 쇠기둥 하나에 버스번호만 달랑 쓰여진 것이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최근에 지붕과 의자와 광고까지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 정류장 앞에 종종 그렇듯이 커다란 차들이 딱 막고 주차되어 있어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릴 수 없어 길에 나와 서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실 새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일으키는 먼지바람 사이로 대만의 버스정류장이 떠오릅니다. 자세한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도 다 안내되어 있고 어떤 곳은 전광판으로 몇 분 후면 몇 번 버스가 도착하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계속 서서 버스가 오는 곳을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20분도, 30분도, 한 시간도 그제 버스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엔 왜 가세요?”

“아, 네, 여행도 하고.....”

“미쳤어요? 그런 나라로, 이 더위에... 더구나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요?”

6년 전, 6개월이 채 안된 큰 아이를 안고 선교지로 오던 비행기에서 만난 한국인 승무원이 저에게 던진 말이 아직도 귓



전에 생생합니다.

물질이 풍요롭고 살기에 편리하고 복지가 잘된 선진화된 고향을 떠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병원에 가는 것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쉽지않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으며, 사회가 늘 불안정하기도 한 곳에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미치지는 않았다고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삶을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 복음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신앙 생활에서조차 자유롭고 이미 모든 기반이 다 잘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저희의 선교지와 같은 곳이 맞는 선택일 것입니다.

성경번역은 현지인들의 마음의 언어로 복음을 접하며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저희 선교지의 성경번역은 저희가 참여하기 10여 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사역이지만 여러 이유들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일이 잘 마무리되어 현지인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땀방 아래 길 위에 서서 먼지를 뒤집어 쓰며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듯,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우매한 선택을 기쁘게 여기시고 선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2014년 봄호 (11호)

L 선교사: 성경번역, 보안지역

1. 4월 24일 임지 복귀 감사, 가장 좋은 조건으로 비자 받도록
2. 필요한 재정 후원이 모두 채워지도록
3. 하나님의 위로가 부모님에 임하시고 지켜주시도록

홍현민/귀주 (은수) 선교사: 교회 협력,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1. 5월에 위클리프 캐나다의 교회협력 부서 돕는 일과 토론토영락교회에서 있을 한인디아스포라포럼 참석을 위해
2. 선교적 성경 읽기 세미나(9월)의 강사로 섬길 신학자를 잘 찾도록
3. 여러가지 새 변화를 맞고 있는 저희 가정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구하도록

A / MF (모세, 이삭) 선교사: 성경번역, 보안지역

1.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 번역된 신약성경의 최종 테스트 잘마치고 녹음작업 준비하도록
2. 온 가족이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3. 앞으로의 사역 방향 결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도록

박요섭/조선향 선교사: 카니누아 성경번역, 파푸아뉴기니

1. 지난 2월 사도행전 자문위원 점검과 수정을 잘 마침 감사
2. 사도행전 오디오 녹음 잘 준비토록
3. 마을에 머물 집이 마련되어 마을에서 번역팀과 카니누아 공동체를 돕도록
4. 3~5월 중 마을 점검이 끝난 마가복음과 요나서 수정 및 번역본이 잘 만들어지고 자문위원 점검 준비되도록

김영수/이미자 선교사 (어진, 제시, 조엘): 훈련 및 멤버케어, 캐나다

1. 틴데일 하계훈련프로그램 잘 준비되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 시도록
2. 김미자 선교사의 멤버 케어와 틴데일 상담사역을 위해
3. 십대가 된 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성장토록
4. 위클리프와 틴데일 그리고 지역교회를 모두 잘 섬기도록
5. 물질적, 영적 그리고 정신적 필요가 잘 채워지도록

캐나다 한인 선교사

강창석/사라 선교사: 이사, 위클리프캐나다 이사회

1. 이사회 모임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결의가 이루어 지도록
2. 말씀묵상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삶이 이어지도록
3. 부부의 건강과 두 아들 가정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위해

윤기태 (/양희숙) 선교사: 인사 및 교회동원, 캐나다

1. 인사 및 동원 등 여러 사역들에 열정을 갖고 기쁨으로 잘 섬기도록
2. 이민교회들을 잘 섬기는 동원사역이 되도록
3.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강건한 가정 되도록
4. 사역과 가정, 그리고 건강과 영성의 균형 유지토록

이규준/한진숙 선교사 (광표, 준표): 교회동원, 캐나다

1. 지속되는 사역들과 새 프로젝트 RBBB가 잘 유지 발전되도록
2. 팀내 리더십 함양과 역량 구축에 힘쓰도록
3. 두 자녀의 성장에 감사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계속 헌신토록

김영돈/김지원 (조엘, 조슈아, 제레마야): 차량정비소장, 파푸아뉴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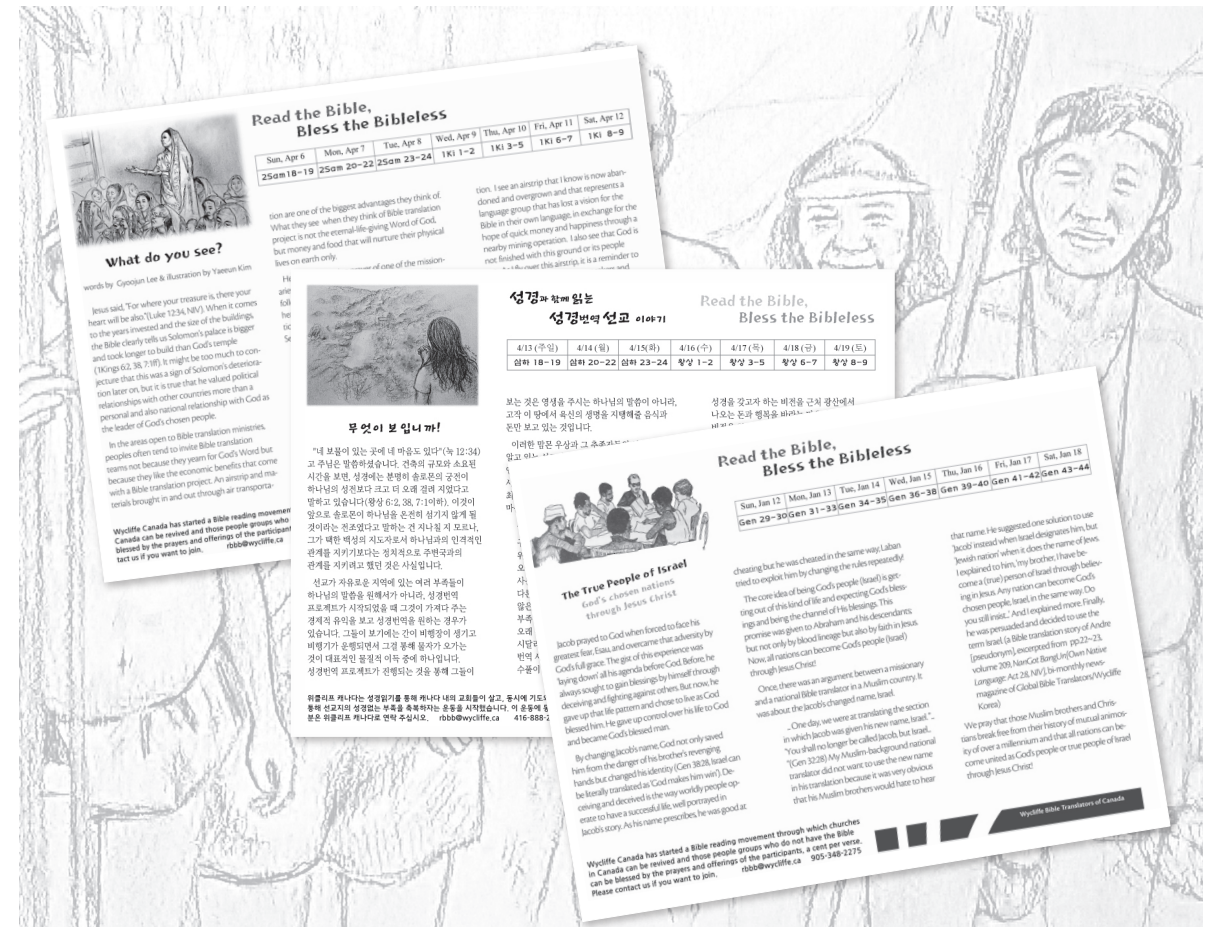
1. 현지사역을 잘 감당케 하신 주님 은혜 감사
2. 안식년 감사 및 후임 선교사 Evan Larson의 좋은 사역을 위해
3. 김지원 선교사의 어린이사역(Puppet Ministry) 후임자 구해지도록
4. 제레마야가 정들었던 우끼룸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헤어지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그리고 캐나다 귀국 후에 잘 적응토록

한인사무국

1.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의 기도/사역팀들이 계속 잘 사역토록
2. 멤버십 과정 중에 있는 후보생들의 하립과 사역 후원 위해
3. 카이로스 코스, 라이프 게임, 찰스 훈런, 글로컬 컨퍼런스, 첫걸음성경 이야기 등 교회 섬김 프로그램들이 잘 지속되고, 교회들과의 우호적인 협력(Kingdom Friendship)이 계속되도록
4. 국내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도록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Have you ever imagined how it would be to receive God's Word in one's own language for the first time in their history? The people were so thankful and passionate about it; they read their new Bible for a few days without drinking, eating, or even sleeping. This humbles those of us who take up our Bible only once a week when going to church or even just pull out our smart-phones for the short reading. Let us bless the Bible-less peoples and experience revival by reading the Bible for ourselves! Wycliffe will send you the weekly portions of Bible reading, the life-transforming stories of Bible translation ministries, and the weekly prayer requests; then you will pray and donate as you have read. Your donation and prayer will be sent to those Bible-less people groups so that they can have God's Word in their heart language as soon as possible. Please join us in this win-win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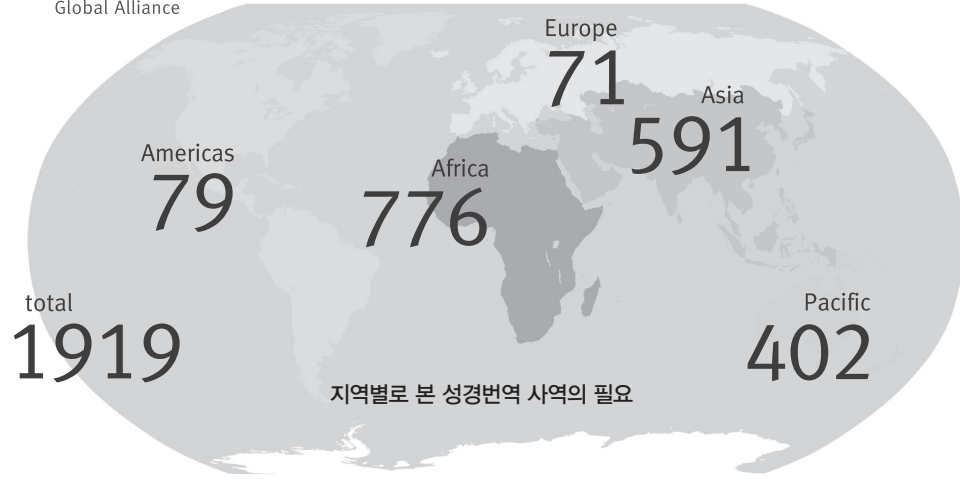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선교 이야기

선교지에서 자기말로 된 성경을 처음 받은 사람들의 감격과 말씀에 대한 열정을 아시나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도 잊은 채 며칠 썩이나 말씀을 읽는 사람들... 겨우 교회 갈 때나 성경에 얹은 먼지를 털어가고, 이제는 스마트 폰에서 예배때나 한번씩 짧은 본문이나 쳐다보는 저희들을 정말 부끄럽게 합니다. RBBB의 목적은, 말씀 읽고 저희도 부흥을 경험하고, 동시에 아직 자기말로 된 말씀이 없는 분들에게 영생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돕자는 것입니다. 일년 일독을 목표로 매 주 일 읽을 분량과, 성경번역선교사역 이야기와,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읽고, 기도하시고, 읽은 만큼 약정 헌금을 내시면, 아직도 자기말로된 성경없는 분들이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언어로 듣게 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



Number of Languages with Likely Need
of Bible Translation with No Active Program in Place
*1576 language communities with no known Scripture



Wycliffe Global Alliance: Language & Translation Statistics

wycliffe.net/statistics, Nov 2013

오늘날 수 십 억의 사람들이 자기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우리의 협력을 통해 당신의 선교를 이뤄가십니다.

2013년 10월 1일 기준으로 1,919개 언어의 약 1억 8천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성경번역 사역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에 1,576개 언어/9천 8백 만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단 한 절도 없으며, 343개 언어/8천 1백 만의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성경이 있지만 성경번역을 위한 사역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번역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말씀이 한 구절도 없는 언어도 많습니다.

현재 131개 국가에서 2,617개 언어에 성경번역 사역이 진행 중이며, 그 사역의 결과로 약 19억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692개 언어에는 아직 낯선 성경이 하나도 없으며, 197개 언어에는 낯선 성경이 한 권씩만 있고, 645개 언어에는 신약 성경만 있으며, 651개 언어에는 성경 일부 구절들이 있지만, 아직 낯선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클리프 국제 연대가 제공하는 성경과 언어 관련 통계 자료는 각국 위클리프와 국제 에스아이엘(SIL International) 및 다른 협력 단체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성 기준 일자 2013년 10월 1일입니다. 위의 인구 수는 Ethnologue의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www.wycliffe.net/resources/scriptureaccessstatistics/tabid/99/Default.aspx#sthash.ezC362CV.dpuf>

오늘날 위클리프 국제 연대(Wycliffe Global Alliance)는 60여 개 국가에서 온 100여 개의 단체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성경 없는 여러 언어 부족들과 함께 성경번역 및 그에 연관된 다른 목표들을 이루고자 힘써 왔습니다. 그 예로, 문해 사역, 교육, 보건, 사회 개발 사역 등에 필요한 수천 가지의 자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1일까지, 위클리프의 협력기관인 Faith Comes by Hearing에서는 751개의 언어로 오디오 성경을 만들었으며, 그 중에 44%는 위클리프와 협력하여 일한 것입니다.

"예수 영화" 역시 중요한 협력기관으로 지금까지 1,200개 언어로 예수 영화를 상영했으며, 그 중 65%가 위클리프와의 협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성경번역을 통해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이루 셀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주셨는지,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들의 시간과 재능, 심지어는 목숨까지 드려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 억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day, millions more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access to God's Word in the language they understand best. God is accomplishing His mission through His power and through partnership.

Scripture exists in over 2,800 of the 6,918 languages currently known to be in use. At least 4.9 billion people have a Bible available in their first language; 1.1 billion of these speak languages where further Scripture translation and/or language development work is happening or needed (see FAQs for more information). Another 598 million people have the New Testament (some of these may also have portions of the Old Testament but not a complete Bible). Of these, 534 million also use languages where further Scripture translation and/or language development work is happening or needed.

As of October 1st 2013, estimates suggest around 180 million people speaking 1,919 languages are understood to 'likely need Bible translation to begin'. These estimates represent 1,576 languages with no known Scripture (98 million people) and 343 languages (81 million people) with some Scripture but no current activities in place. Work is already in progress in many of the communities that do not have any of God's Word in their language. There is known active translation and/or linguistic development happening in 2,167 languages across approximately 131 countries potentially impacting 1.9 billion people. This includes 692 languages for which there is no known Scripture; 197 languages with a Bible; 645 languages with a New Testament; and 651 languages with portions of Scripture, such as a book. Staff from organisations in the Alliance are believed to be involved in at least 79% of these

programmes.

Today, over 100 organisations from more than 60 nations form the Wycliffe Global Alliance. These partners along with other organisations involved in the Bible translation movement have been assisting language communities for over 60 years, helping them achieve their Scripture-related goals. Working in community partnerships, Alliance organisation personnel also help produce thousands of resources for literacy, education, health and other development-related objectives alongside Scripture.

Alliance partner Faith Comes by Hearing has been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Audio Scriptures in 751 languages as of 1st October 2013. The Wycliffe Global Alliance workforce is estimated to have been involved in some way with at least 44% of these.

Another partner The JESUS Film, has released over 1200 different language versions of their film. Personnel from Alliance partner organisations have been involved in at least 65% of the languages in which there is a published Jesus film. There are many other numbers we could report on and many we do not know.

We cannot count how many lives have been positively affected as a result of Bible translation. Nor do we have a figure for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prayed or given financially so that others might give their time and sometimes their lives. We speak on behalf of millions of lives across the world when we say, "Thank you!" 🙏



<p>성경 전권: 513 + 신약 성경 전권: 1294 (및 구약 일부) + 성경 일부: 1010 (한권 이상) = 2817 (성경이 있는 언어)</p>	<p>Complete Bible: 513 + New Testament: 1294 (and some portions) + Just portions: 1010 (one or more books) = 2817 (Languages with some scripture)</p>
---	---

Wycliffe Global Alliance presentations of Scripture and Language Statistics are compiled from data provided by Wycliffe Participating Organisations, SIL International and other partners. Data is current as of 1st Oct 2013. Population data is based on available information about first language speakers in the Ethnologue (SIL). - See more at: <http://www.wycliffe.net/resources/scriptureaccessstatistics/tabid/99/Default.aspx#sthash.ezC362CV.dpuf>

God's love. An open book.

성경,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

Wycliffe serves minority language groups worldwide by fostering an understanding of God's Word through Bible translation, while nurturing literacy, education and stronger communities.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는 세계의 소수민족들이 성경번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동시에 문해사역과 교육, 더 나은 지역사회 건설을 통해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행사안내 Kairos

카이로스 한국어 코스 토론토: 카이로스코스는 이 세상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색다른 선교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잘 짜여진 코스로서 성인들의 각기 다른 다양한 학습 스타일들을 수렴할 수 있게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으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고 힘쓰는 교회들과 이곳 북미에서는 혹은 다른 선교지에서 타문화 선교 사역에 헌신하려는 분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코스입니다. 1주 집중 코스는 5월 12-16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에, 조력자 훈련 과정은 17일(토, 오전9시~오후 3시)에 토론토한인장로교회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각각 \$125불과 25불입니다. (교재포함, 숙식과 교통비는 별도 개인부담) 등록문의는 한인사무국으로 해주십시오.

Upcoming Event

Kairos Course & Facilitator Training: "God,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Kairos Course is a very unique missions training program that helps us look at the world through God's perspective. It is an interactive and well-designed course that implements various types of adult learning styles; one of the best courses for all Christians including church leaders who want to help their churches be missional and those who want to serve with any type of cross-cultural ministry here in North America or in other overseas areas. The course will take place at Toronto Korean Presbyterian Church, May 12-16 (Mon-Fri) as an intensive and full-time one week program. We will have the Facilitators Training Course 9 am - 3 pm on May 17. Each program costs \$125 and \$25 respectively (including materials, but not lodging and meal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Korean Ministries.

재정후원안내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는 "믿음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사들은 시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필요를 교회와 개인들의 후원을 통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열방에서 진행 중인 성경번역사역과 문해사역 및 각종 사회개발사역이 지원을 받게 되고, 위클리프는 버클리 기관으로 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모든 시역비와 활동을 위해 보내는 헌금들은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CRA Charitable Donation #10822 3371 RR0001, 캐나다선단체협회 Canadian Council of Christian Charities 의 회원입니다.) 더 자세한 재정후원 방법은 한인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십시오.

Financial Support

Wycliffe missionaries do not receive a guaranteed salary from our organization. Instead, they rely on God to provide through the gifts of interested individuals and churches. Your financial gift to Wycliffe supports Bible translation and literacy efforts around the world and the gift is fully tax-deductible.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Inc. is a registered Canadian charitable organization (CRA Charitable Donation #10822 3371 RR0001) and a charter member of the Canadian Council of Christian Charities (CCCC).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with Korean Ministries.



캘거리본부 (Calgary Head Office)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4316 10 St NE, Calgary, AB T2E 6K3
403.250.5411 / 1.800.463.1143
알버타 사무실 (KM AB Office)
유민주 간사 403.399.3584
Minju_Yoo@Wycliffe.ca

한인사무국 (Korean Ministries)

동부사무실 416.675.6473
#4, 14 Steinyard Blvd.,
Toronto, ON M9W 6M6
이규준 / 윤기택 선교사
416.888.2262 / 905.348.2275
Kroffice_Canada@Wycliffe.ca

서부사무실 (KM BC Office)

604.513.2129
7600 Glover Rd.,
Langley, BC V2Y 1Y1
남현진 / 류겨훈 간사
778.552.4349
andre-emily.nam@wycliffe.ca